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의 기본 개념 이해를 토대로 단순 정답이나 단편 지식이 아닌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인문학]

※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우정의 본질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우리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더 우호적이며, 나와 무관한 제3자들에게보다 나의 친구들에게 더 많은 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진다. 우정은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우정은 인간의 삶을 인간답게 만드는 소중한 가치이다. 친구는 상대의 특별한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바로 이 한 명의 남다른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서로를 인도하는 인생의 안내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친구와 맺는 우정의 관계를 본(本)으로 삼는 곳에서만, 진정한 소통과 상생이 가능하다. 나로부터 멀리 있는 타인들, 그리고 멀리서 온 이방인들의 차이를 반기며 그들과 '친구가 될 준비'를 하라! 그런 마음이 준비된 자들의 세계에서만 비로소, 참된 '우리'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나) 나에게 가까운 타인이 행복할 자격이 있든 없든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편애(偏愛)라 한다.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이런 치우친 편애의 마음 없이 모두를 똑같이 대한다는 의미이다. 공정한 사람은 '모두'를 나와 연관이 없는 제3자로 바라볼 줄 아는 객관적인 판단의 태도를 취한다.

자기 자신과 가까운 이를 편애하는 마음은 결국 자기를 편애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편애는 자기의 확장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과 가까운 이를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공정한 판단의 태도보다 편애의 태도가 앞서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좋은 삶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든 항상, 공정한 판단의 마음이 치우친 편애의 마음을 능가하고 앞서도록 해야 한다. 그 누구를 대하든지, 그의 선함과 옳음을 '먼저' 따져 묻은 다음에 그의 행복에 관한 물음이 '뒤따라' 오도록 하라! 이와 반대되는 순서로 묻는 세계가 있다면, 그런 세계에는 경멸만이 넘쳐날 것이다.

[문제 1] (가)의 관점에 대해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설명하시오.

[문제 2] 모두가 존엄하고 품위 있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와 (나)의 견해 중 어느 쪽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가?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배제된 사람들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오전

활용 모집단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 제외) 간호대학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윤리교육과, 체육교육과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아동가족학전공) 자유전공학부
문항해설	[문제 1] 제시문 (가)의 입장은 우정이 좋은 삶의 원리이며 우정의 본질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나)의 관점은, 나와 가까운 사람의 옳고 그름을 먼저 따져 묻지 않고 그냥 그의 행복부터 바라는 마음은 편애라는 것이다.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띠는 이 두 입장의 실질적인 논점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 두 입장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각도로 사유해 본 후, (나)가 (가)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추론해 보도록 요구하는 문제이다. [문제 2] 제시문 (가)의 관점은 우정의 공동체를 지향한다면, (나)의 관점은 공정한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가)의 우정의 공동체는 차이를 있는 그대로 다름으로 인정하면서 각자의 특수한 사정과 고유한 상황에 주목하는 타인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중시하며, 추상적인 동일시나 획일화의 경향을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 상정할 것이다. 반면에 (나)의 공정한 공동체는 선과 옳음의 견지에서 모두를 치우침 없이 객관적으로 판정한 다음에 합당한 보상과 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중시할 것이다. 이런 공동체에서는 누군가에게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특혜를 주는 것이 가장 큰 이슈로 비판될 수 있다. 자신이 제시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사례가 해결되려면 (나)의 공정의 이념과 (가)의 공감의 관계 중 무엇이 더 시급히 필요한지 묻는 문항이다.
출제의도	[문제 1] 각각의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문해력과 두 제시문을 연결 지어 유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과 응용력을 평가함 [문제 2] (가)와 (나)의 관점을 삶의 현실에 잘 적용하면서 그 함의를 유의미하게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고력과 응용력을 평가함
교육과정 출제근거	[개념] 공동체, 우정, 공정, 편애, 타인, 좋은 삶의 원리, 사회적 소외, 사회적 배제 [출처]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자료출처

[교과서]

김동환 외, 《국어》, (주)교학사, 246-256쪽

고형진 외, 《국어》, 동아출판, 262-289쪽

신유식 외, 《국어》, 미래엔, 303-317쪽

박영목 외, 《독서》, 천재교육, 24-39, 46-55쪽

이상형 외, 《독서》, 지학사, 96-107, 116-125쪽

한철우 외, 《독서》, 비상교육, 20-35, 40-49쪽

차우규 외, 《생활과 윤리》, (주)금성출판사, 10-13, 20-29, 30-34쪽

김국현 외, 《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10-15, 25-26, 32-40쪽

정창우 외, 《생활과 윤리》, 미래엔, 24-25, 32-43쪽

[기타]

데이비드 에드먼즈, 나이젤 워버턴 (석기용 역), 《철학 한입》, 열린책들, 2012

Rüdiger Bittner, Konrad Cramer, 《Materialien zu Kants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Suhrkamp, 1975